

클래식

명곡 산책 - 8

- 비올라 다 감바

오랜만에 학창 시절 친구들을 만나면 저마다 자신이 살아온 무용담을 경쟁하듯 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끝을 맺곤 하죠. “나도 왕년에는 그랬던 사람이 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 못하다는 말이구나 하면서 먼 박을 주며 다 같이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만약 악기들이 모여서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예전엔 외면을 받았지만 지금은 각광을 받으며 한창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자랑을 늘어놓는 악기도 있고, 한때 화려했던 왕년을 이야기하는 악기도 있겠지요. 오늘의 주인공 ‘비올라 다 감바’는 후자에 속한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악기는 17세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 프랑스와 영국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았지만, 화려하고 음량이 큰 바이올린 족과의 경쟁에서 처참하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올 족 악기들은 그 덕에 마치 박물관에 고이 보관되듯 고스란히 전해져 지금까지 그때 그 시절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올라 다 감바’는 ‘다리 사이에 끼고 연주하는 현악기’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식 이름이구요, 줄여서 ‘감바’라고 많이 말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비올’(viole, viol), 독일에서는 ‘감베’

(Gambe)라고 불렀는데요, 본 글에서는 경우에 따라 ‘감바’와 ‘비올’을 사용하였습니다.



♣ 리카르도 로뇨니 Riccardo Rognoni (ca. 1550~1620)

이별할지라도 Ancor che col partire

리카르도 로뇨니는 밀라노의 유명한 음악가문인 로뇨니 집안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름을 떨친 바이올리니스트로, 본래 베네치아 출신이지만 밀라노-베네치아의 분쟁 후 밀라노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바이올린 탄생 직후의 초창기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사람이며, 길거리 악기였던 바이올린이 궁정에 입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1592년에 베네치아에서 ‘디미누션 연습을 위한 악구들’(디미누션, 긴 음표를 자유롭게 나누어 장식하고 변주하는 방법)을 출판하여 ‘어깨 바이올린’(violino da braccio)이라는 말로 바이올린을 표기한 최초의 문헌을 남겼죠. 그런데 그는 필리포 피치넬리가 “바이올린과 다른 현악기, 그리고 목관 악기들을 뛰어 나게 연주했다. 오늘날의 오르페우스이다”라고 말했듯이 많은 악기를 다룰 수 있었는데, 파올로 모리치아가 “도시의 가장 뛰어난 연주자 중에서도 비올 연주로 많은 칭송을 받고 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아 특히 비올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래 <이별할지라도>는 플랑드르 지방에서 명성을 떨친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 치프리아노 데 로레(Cipriano de Rore, 1515/16~1565)가 작곡한 4성부 마드리갈로, 차분하고 서글픈 정서를 머금은 노래입니다. 이 곡은 1547년에 출판된 후 큰 인기를 얻어 안토니오 데 카베손, 안드레아 가브리엘리, 지오바니 바사노 등 유명한 작곡가들이 이 곡을 바탕으로 새로운 곡들을 만들었죠. 리카르도 로뇨니도 그중 하나로, 비올라 다 감바의 음색은 특히 원곡의 정서를 훌륭히 표현합니다.





그림 1. Jean-Marc Nattier 작품 '비올라 다 감바를 연주하는 앙리에트 부인', 1754
/ 출처 : tumblr.com

그림 2. Johannes Voorhout 작품 '음악 모임' 가운데 오른쪽 얼굴을 손으로 받치고 있는 인물을
북스테후데로 추정, 1674 / 출처 : wikimedia.org



❖ 디테리히 북스테후데 Dieterich Buxtehude (1637~1707)

주께 즐겁게 노래하라 Jubilate Domino, BuxWV 64

디테리히 북스테후데의 삶은 그의 명성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637년에 출생했다는 것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70세 정도 되었다고 말한 것에서 유추한 수치일 뿐이죠. 그는 헬싱보리에서 태어났으며, 헬싱보리에서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했던 아버지로부터 오르간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헬싱보리와 헬싱고르를 거쳐 독일의 뤼베크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오르가니스트와 작곡가로서 대단한 명성을 얻었으며, 특히 뤼베크에서 대규모 작품들을 연주했던 '저녁음악회'로 큰 인기를 누렸죠. 바흐가 22세 때에 "그의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 무려 420km를 걸어간 일화는 북스테후데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말해줍니다. 북스테후데는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오르간 작품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곡을 남겼습니다. 독창 칸타타 <주께 즐겁게 노래하라>는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칸타타 중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의 시편 98편 4~6절을 가사로 합니다. 전체는 4절 '온 땅이여 주께 즐겁게 노래하라,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라.'와 5절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나팔과 호각을 불어라, 우리의 왕 이신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의 각 절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북스테후데의 칸타타들은 독창이 화려하게 노래하고 전체가 후렴을 연주하는 리토르넬로 형식을 갖고 있어서 협주곡과 같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께 즐겁게 노래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이 곡은 비올라 다 감바가 높은 비중으로 등장합니다. 독창은 부드러운 노래뿐만 아니라 강하게 외치듯 노래하는 것에서 5절의 '음성'과 6절의 '나팔'과 '호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면, 비올라 다 감바는 '수금'의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우구스트 퀴넬 August Kühnel (1645~1700)

소나타 10번 Sonate No. 10 Aria "Herr Jesu Christ, du höchstes Gut"

아우구스트 퀴넬은 독일 북부 니더작센 지역의 델멘호르스크 출신으로, 일찍부터 귀스트로와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16세에 작세차이트 공작의 모리스 궁정 오케스트라의 비올라 다 감바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1682년에는 영국에서도 공부를 했으며, 1688년에 다름슈타트 궁정의 음악감독이 되어 20년간 봉직했습니다. 이후 바이마르와 드레스덴, 카셀 등에서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퀴넬은 비올라 다 감바 연주자로서 비올을 위한 곡을 많이 남겼으며, 1698년에 카셀에서 '바소 콘티누오와 한 대 혹은 두 대의 비올라 다 감

바를 위한 14개의 소나타 혹은 파르티타를 출판했습니다. 이 악보집의 열네 곡 중 여섯 곡은 두 대의 감바를 위한 소나타이며, 여덟 곡은 한 대의 감바를 위한 소나타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두 대의 감바를 위한 소나타들은 독일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트리오 소나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나타 10번>은 이 책에 포함된 한 대의 감바와 콘티누오를 위한 곡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최고로 선하신 분입니다.'라는 찬송가를 변주합니다. 이 찬송은 바르톨로메우스 링발트(Bartholomäus Ringwaldt, 1532~ca.1599)가 1588년에 지은 찬송시이며, 멜로디 역시 그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바흐도 같은 제목을 가진 <칸타타 113번>에서 이 멜로디를 사용했을 정도로 당시 잘 알려진 멜로디였습니다.

마랭 마레 Marin Marais (1656~1728)

스페인의 라 폴리아 Les Folies d'Espagne

마랭 마레는 비올라 다 감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음악가였습니다. 영화 '왕의 춤'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잘 알려진 루이 14세의 음악가 쥘리(Jean-Baptiste Lully, 1632~1687)에게서 작곡을, 당대 최고의 베이스 비올의 대가였던 생트-콜롬브(Monsieur de Sainte-Colombe, ca. 1640~1700)에게 비올을 배웠습니다. 특히 생트-콜롬브는 단 6개월 만에 마레가 자신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하산시켰다고 하는데, 마레를 언급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이 바로 이 기간을 그린 것입니다. 이후 그는 비올의 천사로 추앙받았으며, 작곡가로서도 프랑스 바로크를 빛내는 네 개의 오페라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비올 작품들은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의 비올 주법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비올 연주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꼽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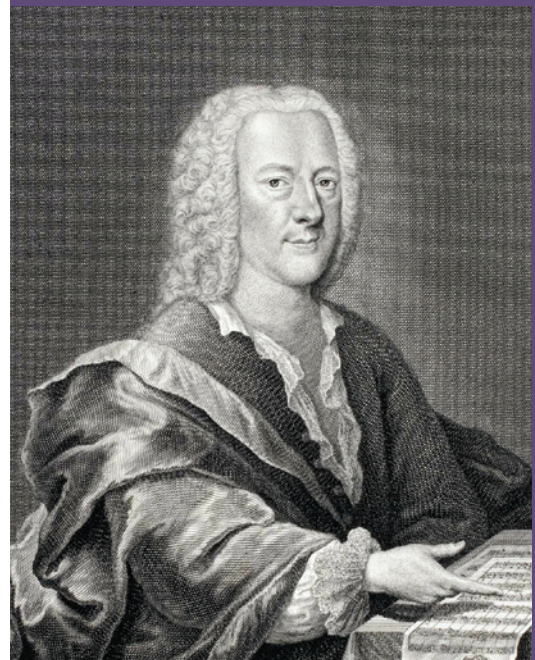
'라 폴리아'는 바로크 시대에 인기가 높았던 선율로, 릴리, 코렐리, 마레, A. 스카를라티, 비발디, 제미니아니, 헨델, 바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바로크 작곡가들이 이 주제로 변주곡을 만들어 자신의 작곡과 연주 실력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이 곡들은 '라 폴리아'의 특정 화음 진행을 고정시키고 그 위에 멜로디와 리듬을 자유롭게 변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으뜸화음(I)에서 딸림화음(V)으로 이동한 후 다시 으뜸화음(I)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단7도 화음(bVII)으로 옮겨가고 단3도 화음(bIII)에서 잠시 숨을 돌리지만, 다시 단7도 화음(bVII)을 거쳐 으뜸화음(I)으로 안착하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딸림화음(V)으로 잠시 갔다가 지금까지의 진행을 또다시 반복하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으뜸화음(I)으로 마무리합니다. 첫 주제가 연주될 때 머릿속으로 이 화음을 하나씩 하나씩



그림 3. 마랭 마레 / 출처 : spotify.com

그림 4. 게오르크 필리프 텔레만 / 출처 : wikipedia.org



따라가 본다면 라 폴리아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레의 <스페인의 라 폴리아>는 '비올 작품집 2권'의 20번째 곡으로,
'모음곡 1번 d단조'의 마지막 곡입니다. 이 곡은 1번 곡 주제와 2번~32번
곡의 변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게오르크 필리프 텔레만 Georg Philipp Telemann (1681~1767)

비올라 다 감바 소나타 마단조 Viola da gamba Sonata in e minor, TWV 41:e5

독일 마그데부르크 출신의 텔레만은 18세기 전반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작곡가였으며, 역사상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작곡가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본래 라이프치히에서 법을 전공했지만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독일을 비롯하여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양식뿐만 아니라, 이외의 지역 음악에도 정통했죠. 또한 거의 모든 악기를 다룰 수 있었으며 동양의 악기도 연구할 정도로 악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관심은 음악 스타일과 악기 편성에 잘 반영되어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그의 작품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독특하고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형식미보다는 갈랑트 양식을 추구한 것도 바흐를 넘어서는 큰 인기를 얻은 요인 중 하나였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곡은 함부르크에서 마지막으로 출판된 '다양한 악기들을 위한 열두 곡의 독주곡과 열두 곡의 삼중주곡에 있는 음악적 존재'(1739-40)에 수록되어있습니다. 1악장은 차분하고 사색적으로 시작하며, 2악장은 지그 스타일로 빠르게 연주됩니다. 3악장은 당시 오페라나 칸타타에서 볼 수 있었던 레치타티보-아리아로서, 일종의 무언가입니다. 마지막 4악장은 미뉴엣 스타일의 론도로서 발랄하게 마무리합니다.

♣ 칼 필리프 에마누엘 바흐 Carl Philipp Emanuel Bach (1714~1788)

감바 소나타 사단조 Sonate für Viola da Gamba und Cembalo obligato g-moll, Wq 88

18세기 중반 이후 감바는 급속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습니다. 이에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둘째 아들인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는 감바 소나타로 고별의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 음악에 하나의 정서만을 표현하며 음악의 절대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이전 세대의 음악보다는, 당시 유행했던 '감정과다 양식'(empfindsamer Stil), 즉 한 곡에 여러 정서를 표현

하는 새로운 조류를 쫓았던 18세기의 대표적인 작곡가였죠. 특히 수많은 건반 소나타로 큰 명성을 얻었으며, 하이든이 그의 작품을 면밀히 연구할 정도로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모차르트는 '그는 아버지이고 나는 어린아이'라고 말했으며 베토벤은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는 등, 빈 악파의 고전 음악을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CPE 바흐는 이미 구식 악기가 된 감바를 위해서 네 개의 소나타를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세 곡이 전해지고 있으며, 옛 시대의 악기를 통해서도 다양한 감정을 당시 스타일로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바흐의 작품에 대한 권위자로서 옛 양식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작곡된 다른 두 곡에 비해 10년 정도 후인 1756년에 작곡된 사단조 소나타는 서로 모방하는 구조를 갖는 엄격한 트리오 형식을 갖추어 아버지 바흐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곡은 '트리오'로 불리기도 합니다.

감바와 쳄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을 경쟁하듯 쏟아내며 휘몰아치는 1악장이 지나고 나면 지치고 나른한 2악장에서 지난날들을 회상하는 듯 상념에 젖습니다. 3악장은 아직 못다 했던 말들을 거칠게 풀어놓는 모습이 약 10년 후에 불어 닥칠 질풍노도의 시대를 예견하는 듯합니다. 🎻

그림 5. 칼 필리프 에마누엘 바흐 / 출처 : northcountrypublicradio.org

